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◆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

○ 2005년 8월 22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(표 1 참조).

- 분규발생건수는 223건, 분규참가자수는 33,834명, 근로손실일수는 278,261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412건, 168,595명, 982,767일보다 크게 감소
- 이는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.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3. 8. 22	2004. 8. 22	2005. 8. 22
노사분규 발생 건수(개소)	272	412	223
분 규 참 가 자 수(명)	122,451	168,595	33,834
근 로 손 실 일 수(일)	1,059,578	982,767	278,261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◆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확정

- 퇴직연금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,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와 관련하여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, 천재·사변 등의 경우를 포함함.
 -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수준을 60/100 이상으로 하되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는 60/100 이하의 범위에서 현행 퇴직적립금의 적립현황, 법인세제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·고시함.
 -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과 인적·물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함.
 -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며, 국채, 지방채, 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함.
 - 적립금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·적금,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,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,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함.
 -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두고(DC형의 경우 직접 주식투자는 불가),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, 40%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함.
 -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,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,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, 보고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- ◆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긴급조정 결정 관련 노사정 공방
 - 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파업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에 대해 8월 10일부로 긴급조정을 결정
 - 장관은 ‘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장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섭지원과 자율타결을 독려해 왔지만 노사가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

을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긴급조정을 발동하게 되었음’을 설명

- 또한 ‘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뿐 아니라 항공기 결항에 따른 수출품 처리지연, 국민생활의 불편도 누적,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음’을 언급함.

○ 경총, 긴급조정 결정 환영

- 경총은 성명을 통해 ‘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긴급조정 결정을 환영함’을 밝힘.
- 경총은 이미 7월 18일과 25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중단과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을 주장해 왔으며, 항공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한 바 있음.

○ 양대노총, 긴급조정 결정 규탄

-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, ‘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노사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인 긴급조정제도의 폐지를 주장’하며 향후 총파업 조직, ILO 아시아 총회 전면거부 등의 투쟁 일정을 밝힘.
-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‘민간항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,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은 위법적 행위이며, 권한남용의 소지가 많은 현행 제도는 철폐되어야 함’을 주장함.

※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 결정 이후, 현업에 복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수락거부로 중재회부가 결정됨(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하게 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).

◆ ILO 아태지역총회 관련 노사정 공방

○ 양대노총은 노동정책의 전면수정 등을 요구하며 ILO 아태지역총회의 불참을 통보

-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‘현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 수정과 노정관계 복원이 전제되지 않은 ILO 아태지역총회 개최는 무의미하다’고 주장하며 ‘노동부장관 퇴진 등 정부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’함.
- 양대노총은 8월 22~23일, 양노총 사무총(처)장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ILO(국제노동기구) 본부 및 ICFTU(국제자유노련) 본부 등에 파견하여 개최반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.

- 경총, 양대노총의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철회 요청
 - 경총은 성명을 통해 ‘노동계는 국가적 위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고, 삼자주의와 대화의 정신을 존중하여 세계 각국 노사정을 실망시키는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’함.
 - 노동부, 양대노총에 노사정 대화 제안
 - 노동부는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‘노동계가 정부의 대화·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문제를 이유로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인 ILO 아태지역총회의 연기 및 개최지 변경을 제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’함.
 - 노동부는 8월 24일, 노사정대표가 직접 만나 ILO 아태지역총회의 원활한 개최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.
- ※ 한편 ILO는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4차 아태지역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 노사정에 통보하였음.

주요노동일지

(2005. 7. 21~8. 21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7. 21		· 보건의료노조: 6개 병원 파업계속, 5개소 추가 파업 돌입	·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: 전면파업 계속(7. 17~)
7. 26			·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: 중노위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가결
7. 27			· 한진중공업노조: 임단협 잠정합의 · 현대미포조선노조: 임금교섭 잠정합의
7. 28			· 대우자동차노조: 임금교섭 관련 노조내부 이견으로 집행부 사퇴
7. 29			· 금속노조 만도지부: 임단협 재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
8. 3	· 노동부: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분류 관련 입장 발표	· 보건의료노조: 소속 28개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 · 금융노조: 금융산업 아웃소싱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	·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: 임단협 결렬도 중노위 조정신청 · 도시철도공사노조: 8대 위원장 선거, 김남일 후보 당선
8. 5			· 대우자동차노조: 임금교섭 관련 사측 최종안 찬반투표 가결
8. 9	· 노동부·한국노동연구원: 고용허가제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	· 민주노총: 하이닉스-매그나칩 사태 관련 결의대회 개최	· 해태제과식품(주)노조: 단협 결렬로 파업 계속(6. 28~)
8. 10	· 노동부: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 결정	· 민주노총: 현 노동사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긴급조정 규탄 결의대회 개최	· 쌍용자동차노조: 임금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
8. 12		· 양대노총: ILO 아태지역총회 불참 선언 기자회견 개최 · 금속노조: 4기 임원선거 일정공고	· 현대자동차노조: 임단협 교섭 결렬로 중노위 조정신청
8. 14		· 양대노총: 노동탄압 분쇄, 재벌해체 결의대회 및 6.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 노동본부 발족식	
8. 16		·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: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	
8. 17		· 금속연맹: 8월 정치파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	
8. 18			· 대한항공조종사노조: 단체협약 잠정합의 도출
8. 19			· 아시아나항공(일반)노동조합: 임금교섭 잠정합의